

세계 겨루기 고수 159명 무주 집결... 태권 '왕중왕' 가린다

10일부터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 15개조 참가 G1등급 남녀 4체급 32강 토너먼트 형식 진행... 문화공연도 마련

태권도의 성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세계 15개국 태권도인이 겨루기로 격돌하는 G1등급 세계대회가 열린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 주관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대회는 G1등급의 태권도 겨루기 국제대회로 WT 온라인 참가시스템(GMS)을 통해 대회 참가자를 모집했다.

한국과 프랑스, 호주, 부룬디 등 15개국 159명이 참여를 희망했다. 선수들은 국가별로 입국절차를 밟고 있으며, 입국 후 태권도원으로 이동, 대회 전 훈련을 한다.

대회는 올림픽 규정과 동일하게 남녀 4체급 32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체급별 1위와 2위 입상선수에게는 G6등급의 '2022 맨체스터 그랑프리 시리즈' 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개막식은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현대미술의 거장 이성근 화백의 작품 제작식을 시작으로 타악과 비보이 공연,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 공연, 케이팝 공연 등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선보인다.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이번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가 태권도의 진흥과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가 힘을 모아 준비한 대회인 만큼 참가 선수들이 모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스키아데일리/뉴시스



전북 무주 태권도진흥재단은 대한태권도협회와 공동 주관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권도원의 T1경기장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고2에 두 아들의 엄마된 출연자 시부모·시동생 등과 공동육아

MBN '어른들은 모르는..첫회 '한지붕 대가족' 일상 흥미진진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의 뉴페이스 손은주가 대가족 일상을 공개한다.

7일 오후 10시20분 방송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 첫 회에서는 고2에 두 아들의 엄마가 된 손은주가 출연해 '한지붕 대가족'으로 사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 준다.

이날 손은주는 남편과 두 아들 외에도 시부모, 시동생, 친여동생까지 무려 8명이 모여 사는 집을 소개한다. 이들은 매끼 엄청난 양의 밥을 하고 하루에 두 번씩 빨래를 해야 할 정도로 북적거리지만 '30개월' 하준이와 '16개월' 이준이를 공

동 육아해 혼란함을 자아낸다.

손은주는 시어머니와 반말로 대화하는 친근한 모습을 보여 3MC를 놀라게 한다. 이에 박미선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라며 놀라고 하하는 "거의 엄마인데"라며 감탄한다. 이 같은 상황에 손은주는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와 같이 산부인과를 갔다"며 남다른 고부 사이를 입증한다.

제작진은 "손은주의 평범한 듯 남다른 일상에 3MC와 전문가들도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집안일과 가계부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손은주의 노련한 주부 9단 면모와 함께 범상치 않은 시대 식구와의 일상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봐 달라"고 청했다.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 영상 캡처.

MBN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칠레 경기에서 한국 손흥민이 골을 넣은 뒤 세레머니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칠레 경기에서 정우영이 패스하고 있다. 뉴시스

'손톱+센트럴우영'... 벤투호 '본선용 전술'로 떠오를까

손흥민 최전방 원톱... 활동형 정우영 공격형 미드필더 활용 강팀 상대하는 월드컵 본선서 '실리적 전술'로 사용될 수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손흥민(토트넘)을 최전방에 세운 '손톱(손흥민 원톱)'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을 중앙에 배치한 '센트럴우영' 전술이 벤투호의 카타르월드컵 본선에서도 가동될지 관심이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칠레와의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브라질전 대패의 충격 탓인지, 평소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던 벤투 감독이 전술에 변화를 줬다.

기존에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을 뒀던 4-1-4-1 포메이션에서 '2명'으로 늘린 4-2-3-1 전술로 바꿨다.

핵심은 불박이 주전 스트라이커였던 황의조(보르도)를 벤치로 내리고 측면 원어로 뛰어 온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른바 '손톱' 전술이다.

손흥민이 원톱에 서고 스피드를 갖춘 황희찬(울버햄튼)과 나상호(서울)를 좌우 날개로 배치했다. 또 바이에른 뮌헨(독일) 유

스를 거쳐 프라이부르크에서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 중인 정우영을 손흥민 바로 아래 2선 '중앙'에 세웠다.

손톱과 '센트럴우영'으로 구성된 공격 조합은 그동안 자주 볼 수 없었던 형태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벤투 감독의 전술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다만 벤투 감독이 최종예선을 포함해 기존에 써 온 자원들을 쉽게 포기할지는 의문이다.

이찬원, 5월 가왕전 상금 기부... 누적 2110만원

가수 이찬원(사진)이 5월 가왕전 상금 15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

이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지원을 위해 선한스타에서 획득한 150만원 전액을 기부했다.

이찬원은 그동안 선한스타 가왕전을 통해 팬들의 사랑과 함께 따뜻한 기부를 이어 갔다. 이에 누적 기부금액 2110만원을 달성하며, 6월에도 선한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외래치료비 사업은 집중 항암 치료를



위해 매달 병원에 방문하거나 이식 등의 후유증을 치료 중인 환자 가정에 교통비, 식비, 약제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